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가문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담당간사:이승희:796-8364)
제 목 소액주주운동에 관한 신문광고 게재의 건
날 짜 1997. 3. 21.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신문 광고를 통해 제일은행 소액주주 공개 모집 '병어리 냉가슴...', 소액주주도 이제 목소리를 냅시다'라는 제목으로 신문광고 게재

1.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는 3월 21일자 2개 중앙 일간지에 제일은행 소액주주를 모집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
2. '병어리 냉가슴...', 소액주주도 이제 목소리를 냅시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광고는, 부실경영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모여서 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연대에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또, 참여연대는 이 광고를 통해 제일은행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선정하여 '기업감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각계 전문가와 소액주주들, 일반시민들을 모시고 소액주주운동의 의의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여의도 증권업협회 강당에서 개최한다. 끝.

※ 별첨 : 광고 문안 1부

벤처리 내기슴... , 소액주주도 이제 목소리를 낸시다.

소액주주운동에 함께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정나간던 제일은행이 부실당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은행금고가 강경건의 사금고입니까?

당배인 독재 문부가 한보부실대출 총 1조 500억원
이저수익의 손실인 데다도 1년에 창이연대 남습니다.
부도가 뻔한 기업에 돈을 바꾸어 이제 제일은행 자원이
부도가 뻔 합니다.

연원파리 주식을 연원을 만들어 놓고 나몰라
부실경영 책임회파, 만일 만일입니다.

최저금들 동맹 앞에서 산 제일은행 주식이 반값도 안되
게 폭락했습니다. 노후보장을 위해 무지했던 고지주식
이던 1년만에 어둠전지로 둔감해졌습니다. 그러나 소
액주주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82년주만 모으면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 기업이겠습니까? 소액주주도 모이면 힘
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에 주주대표소송을 걸어
최저의 주주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고 회계
장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권익찾기에 나섰습니다.
제일은행 주주권찾기를 위임해 주십시오.

단 1주씩 가지고 계신 분도 좋고 10만주를 가지고 계신
분도 좋습니다. 지금 곧 참여연대의 문을 두드리 주십시오.
오 미칠듯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한두 두주 모아서 는
당치않을 뿐이요 우리의 힘을 보여줍니다.

제일은행은 시력발달입니다.
더 많은 기업을 상대로 이 운동을 계속 해나갑니다.

소액주주운동은 제일은행만큼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가 아님니다. 소액주주의 권익 찾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불 공개적으로 선정하여 기업감시 시민운동을 벌여나
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의 파트너로서 '책임
경영' 이 이루어지는 경영운동들 만들어낸 것입니다.

- 전화 권 등으로 행동하는 소액주주가 되십시오.
전화 : 736-8364, 팩스 : 773-4745, 이메일 : 창이
■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운동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어려운의 성금은 소액주주운동 창설에 쓰여집니다.
대금은행 015-32-4032-000, 예금주 창이연대주최서면연대

『 소액 주 주 운동 』 토 론 회

『 소액 주 주 운동 』
기업감시의 새로운 시도

- 일시 : 97년 3월 31일 오후 3시
- 장소 :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
- 주제 :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
- 발제 및 토론자 :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
- 후원 :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

주최 : 창이연대 후원 :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 (창이연대 창설자 김성국)